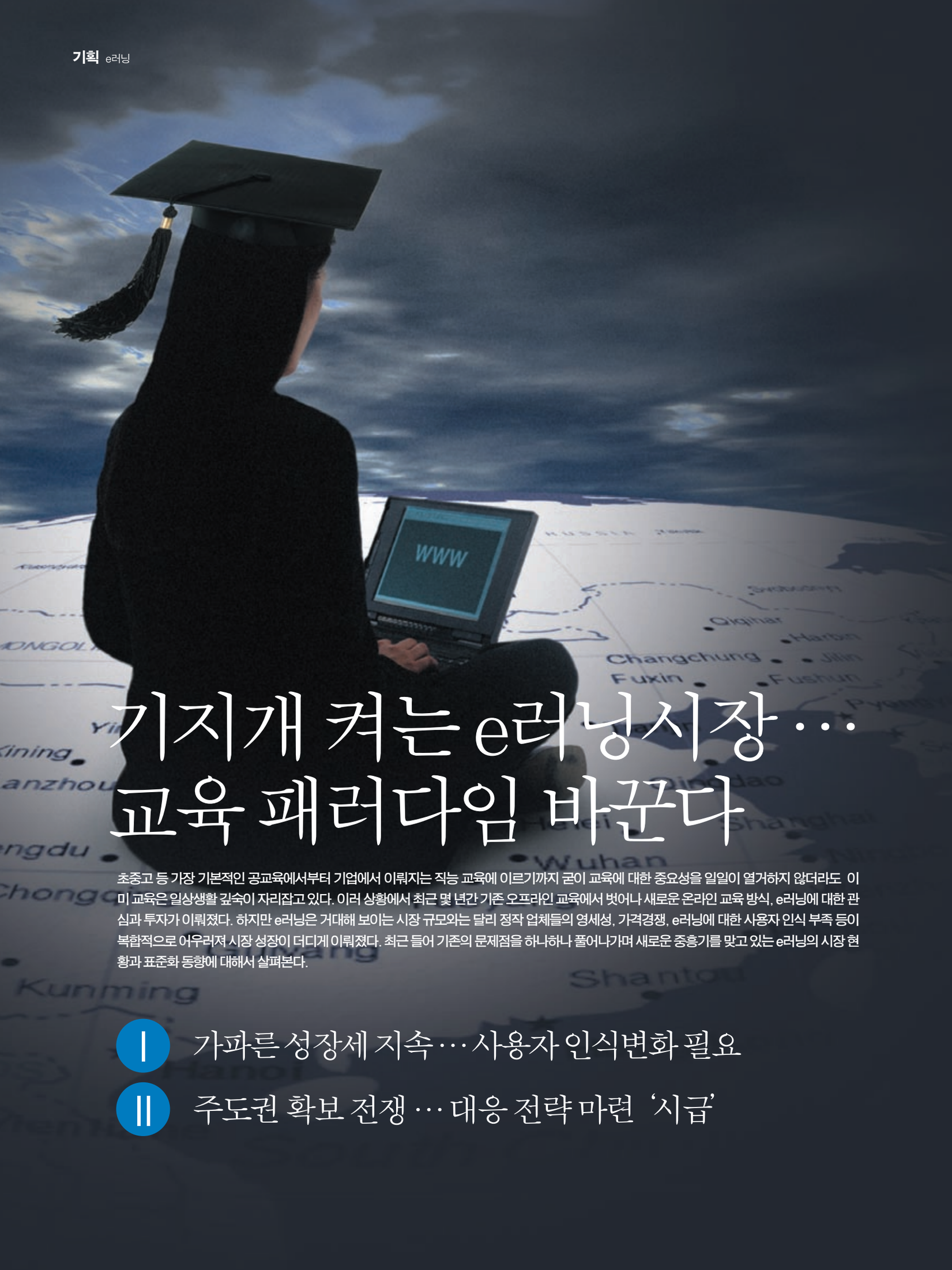


기지개 켜는 e러닝시장…교육 패러다임 바꾼다

초중고 등 가장 기본적인 공교육에서부터 기업에서 이뤄지는 직능 교육에 이르기까지 굳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이미 교육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이러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기존 오프라인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온라인 교육 방식, e러닝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이뤄졌다. 하지만 e러닝은 거대해 보이는 시장 규모와는 달리 정작 업체들의 영세성, 가격경쟁, e러닝에 대한 사용자 인식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시장 성장이 더디게 이뤄졌다. 최근 들어 기존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며 새로운 중흥기를 맞고 있는 e러닝의 시장 현황과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살펴본다.

I 가파른 성장세 지속…사용자 인식변화 필요

II 주도권 확보 전쟁…대응 전략 마련 '시급'

업계 동향

1 가파른 성장세 지속… 사용자 인식변화 필요

그동안 e러닝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크게 확대되진 못했다. e러닝에 대한 편견도 문제거니와 관련 솔루션이나 콘텐츠 등도 다양하지 못했던 탓이다. 하지만 e러닝산업이 최근 들어 그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도약할 채비를 갖춰가고 있다. 정부는 정부대로 가시적인 정책들을 내놓으며 e러닝 확산 의지를 곧추세우고 있으며 관련 업체들도 전문성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매년 20%가 넘는, 그야말로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e러닝시장을 분석했다.

글 **양기석** 기자

e러닝시장이 전환기를 맞고 있다. e러닝은 그간 기업체의 직능교육 부문에서 나타난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 등 공공교육시장으로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면서 표준화, 관련 기술개발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더욱이 e러닝의 적용 영역이 확대되면서 정부 각 부처에서도 e러닝 관련 중장기 계획과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어 그간 지지부진했던 e러닝시장이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e러닝을 통해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기업 근로자는 지난해 50%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 기업교육시장에서 e러닝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1년 13.8%에서 올해에는 35%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무적인 점은 그간 불모지로 여겨졌던 초중고 등 공교육 분야에서도 e러닝 비중이 커지면서 지난 2002년 3%에서 올해는 15%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명분과 실리'를 얻기 위한 대안으로도 e러닝이 제 역할을 해가고 있는 셈이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e러닝시장은 콘텐츠 · 솔루션 · 서비스를 포함해 총 시장규모가 1조2,900억원인 것으로 추정됐고,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한국사이버교육학회가 발간한 'e러닝백서 2005'에서도 올 시장 규모가 1조5천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오는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0%를 넘는 고공비행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세계 e러닝시장 역시 지난해 231억달러에서 오는 2014년에는 795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국내외를 불문하고 e러닝에 대한 기대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팔 걷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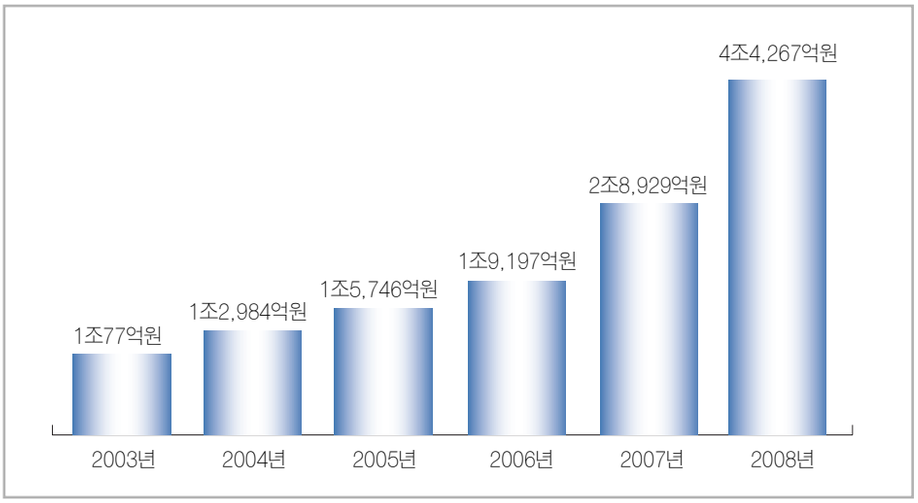
이처럼 e러닝에 대한 관심과 실제 적용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교육비 절감, 생산성 향상이라는 기존의 이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오프라인 교육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실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러닝은 새로운 투자가 아닌 이미 형성된 기존 IT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적인 교육방안으로도 적극 모색되고 있는 상황. 정부가 e러닝을 지식기반 사회의 핵심분야로 설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육성 방침을 천명한 것도 이러한 상황과 맥을 같이 한다.

실제로 정부의 각 부처에서는 e러닝 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통부가 지난 2002년 7월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제정, e러닝 콘텐츠 지원에 나선 것을 비롯해 지난해 1월에는 산업자원부의 e러닝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러닝산업발전법은 e러닝을 단순한 교육이 아닌 산업 차원에서 접근하고 활성화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공공기관에서 20% 이상 e러닝 도입을 권고하는 조항을 삽입, 공공기관에서 e러닝을 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올해 들어 'e평생학습국가'를 건설한다는 방침 아래 'e러닝 활성화를 통한 국가인적자원 개발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 이 전략은 무엇보다 정보통신부 · 행정자치부 · 산업자원부 · 교육인적자원부 · 노동부 등 정부 각 부처별로 e러닝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중복 투자와 비효율성을 제거하

〈그림〉 국내 e러닝 시장 추이



자료: 한국전자상거래진흥원

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물로 최근 관련 부처가 모여 e러닝 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계획안에는 e러닝 관련 부처가 힘을 모았다는 상징적 의미 외에도 문화부가 주장한 e러닝 콘텐츠 육성의 필요성을 담은 '에듀테인먼트 육성책'을 계획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솔루션 업계 통합화 가속

최근 몇 년 동안 부침이 심했던 e러닝시장에서는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솔루션, 서비스, 콘텐츠 분야를 아울러 토털 e러닝 업체로 변신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한정된 시장에서 적지 않은 업체들이 난립하는 등 과열경쟁 양상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기 때문.

업계 관계자는 "국내 e러닝 업체들은 사업 다각화를 통해 모든 e러닝 구성요소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솔루션 업체들의 경우 주로 자사 솔루션에 적합한 콘텐츠, 서비스를 개발하며 통합 e러닝업체로 전환했거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솔루션 분야에서는 표준화 문제를 비롯해 기술적인 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하다. 주요 e러닝 솔루션 업체들은 기존 LMS에 SCORM 표준과 CMS 기능을 포함한 LCMS 시스템으로 개발 방향을 전환했거나 이미 관련 제품을 출시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그간 주요 테마였던 LMS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부가솔루션인 LCMS(Learning Content Management System), 테스팅 툴 등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포씨소프트는 기존 e러닝 저작 툴뿐만 아니라 LMS/LCMS를 포함한 'Active One'이라는 통합 솔루션을 개발, 솔루션 영역 확대에 나서고 있고, 메디오피아는 기존 LMS에 성과관리 요소를 접목시킨 PMS(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요 개척에 나서고 있다.

교육부의 국책사업인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알렉스아이티도 최근 LCMS 패키지 상품화를 통해서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오픈소스 LMS를 무료 배포한 것으로 유명한 지노테크도 관련 솔루션 영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다울소프트는 자사의 e러닝 솔루션 '티칭메이트'를 통해서 학습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에서 평가, 교육 시스템 운영, 학습자료 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 e러닝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세중나모는 자사의 웹 저작도구인 나모 웹에디터와의 인터페이스가 장점인 e러닝 솔루션 'ICT클래스2005 플러스'를 통해 공교육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확장에 나서고 있고, 한글과컴퓨터도 기능이 대폭 강화된 e러닝 제품인 '한컴 e知샘 2005'를 출시하는 등 e러닝 솔루션 시장은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

서비스 분야, 정부 지원으로 성장세

e러닝 서비스 분야는 정부의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비교적 타 분야보다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다. 정부가 고용보험료 중 직업능력개발사업비 재원을 바탕으로 교육비 지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e러닝 활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것. 이는 기존 B2B 중심의 e러닝이 차츰 B2C시장으로 파급되는 효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영 e러닝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휴넷은 B2B 중심의 e러닝 서비스에서 점차 B2C시장으로 확장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고 있는 케이스. 올해 들어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에 힘입어 B2C 사업 매출이 B2B 수준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다.

지난해부터 기업의 윤리경영 교육을 e러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캠퍼스21은 올해 들어 윤리경영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혁신 과정을 개발, B2B 및 B2C시장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에듀윌도 공인중개사 · 공무원 · 주택관리사 등을 온라인을 통해 24시간 교육하는 체계를 갖추고 일반 대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B2B 시장을 중심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에듀케이엘씨도 e러닝 관련 종합적인 컨설팅 분야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솔루션, 서비스 분야에 비해 콘텐츠 분야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들어 사용자들의 관심이 e러닝 솔루션 자체 보다는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 동영상과 에듀테인먼트 콘텐츠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사용자들은 콘텐츠 제작 방식의 고급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 요구에 대응하려고 해도 콘텐츠 기업들의 영세성이 문제다. 이는 e러닝에서 차지하는 콘텐츠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장에서는 제값을 받지 못하기 때문. 관련 업체들이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한 충분한 여력이 없

다는 것은 전체 e러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부분이다.

이혜옥 휴넷 팀장은 "현재 e러닝 시장은 콘텐츠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솔루션 · 서비스 위주로만 시장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며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과 솔루션 개발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대형 · 외국계 업체들도 출격 채비

전문업체들 외에도 올해에는 국내 대형업체, 외국계 IT기업들도 e러닝시장 공략에 힘을 쏟고 있어 관련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업체가 KT. 이 회사는 최근 교육을 4대 콘텐츠 전략 사업중 하나로 선정, 인력과 자본을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에 대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KT는 최근 EBS와 e러닝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을 비롯 지난 4월에도 교육인적자원부와도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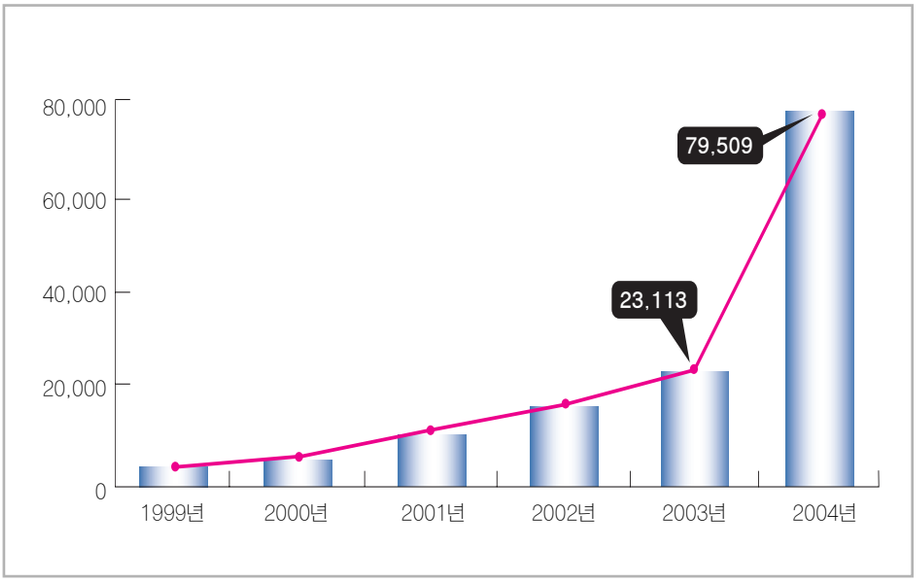
온라인 수능 전문기업인 '이투스'에 대한 지분 투자로 관련 업계를 놀라게 했던 SK커뮤니케이션즈는 맞춤형 입시 e러닝 서비스인 '싸이월드스쿨'을 오픈하며 e러닝 사업을 본격화하며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한편, 외국계 기업으로는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대기업 타깃의 교육인적자산관리 솔루션과 국내 중소기업에 적합한 교육인적자원 관리 솔루션을 개발한 바 있는 한국썬은 지난 9월부터 NETg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서 5,000여개 콘텐츠를 ASP 형태로 서비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e러닝시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한국썬은 기업들의 e러닝 솔루션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에도 역량을 집중해 e러닝의 모든 것을 제공한다는 전략이다.

e러닝 플랫폼인 '마이크로소프트 러닝 게이트웨이'를 출시한 바 있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닷넷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플랫폼 확산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MS의 여타 서버 제품군 서비스를 통합해 효율적인 웹 기반 포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림 2〉 세계 e러닝시장 추이



자료: IDC

문제점도 산 넘어 산

국내 e러닝시장은 이미 1조원을 훌쩍 넘겨버린 거대 시장이지만 실제 e러닝 업체들이 체감하는 시장 규모는 미미하다. e러닝이 기업의 직능교육 · 초중고교육 · 평생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따라서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개별 기업들의 몫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시장 파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러닝업체들의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게다가 e러닝시장이 본격 개화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문인력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시장이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확장되다 보니 콘텐츠 개발에서부터 솔루션 구축에 이르기까지 e러닝 전분야에 걸쳐 전문 인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디지털정책학회가 발표한 'e러닝 인력양성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e러닝 분야가 최근 몇 년 간 급성장하면서 운영자, IT 전문가 등 전문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지난 2003년 이후 공급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자원부가 한국e러닝산업협회를 통해서 e러닝기업에 대한 등록 및 인증 사업을 시작한 것을 비롯 e러닝 인력양성을 위한 일정 금액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러한 업계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기 포씨소프트 과장은 "e러닝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전문 개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러닝 발전은 사용자의 몫

그간 정부 각 부처별로 e러닝에 대한 지원책을 끊임없이 발표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e러닝은 궁극적으로 사교육 등 국내 교육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다. 일례로 적지 않은 사용자들이 e러닝 콘텐츠의 내용보다는 화려한 콘텐츠 제작 방식에 치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보여주기 위한' e러닝은 궁극적으로 e러닝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e러닝의 핵심적 요소인 콘텐츠 업체들의 경쟁력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고 있다.

이상희 한국썬 대리는 "콘텐츠 제작 방식으로 서비스의 질을 평가하기 보다는 콘텐츠 자체의 품질 및 내용의 신뢰도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관련 전문가의 평가가 e러닝 서비스의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면 기초 수준의 교육에 머물고 있는 e러닝의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2 국내외 표준화 동향

주도권 확보 전쟁 … 대응 전략 마련 시급

현재 세계적으로 e러닝에 관한 국제 표준 개발 기구에는 ADL · AICC · IMS · CEN · IEEE/LTSC · ISO/JTC1/SC36 등 여러 단체들이 있다. 그 중에서 ISO/IEC JTC1 산하의 SC36(Sub Committee 36)인 'Information Technology for Learning, Education, and Training' 하위 분과는 2000년 3월 영국 런던에서 첫 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했다. 출범 이후 매년 참가국 수가 늘어나 현재에는 24개국의 정회원(P-Member)과 3개국의 참관회원(O-Member)을 포함, 회원국이 총 27개국에 이른다. 일년에 두번씩 개최되는 총회는 관련 워킹그룹의 미팅과 동시에 이뤄지며 올해에는 지난 9월 12차 회의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렸다. 본 고에서는 9월에 개최된 제 12차 총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파악한 최근 표준화 동향을 소개한다.

글 **이인숙** 세종대 교수 · **곽덕훈** 방송통신대 교수

SC36에는 7개의 워킹그룹이 구성돼 있다. 각 그룹은 각 나라의 국가대표(National Body)가 참여해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고, 모든 표준은 이 그룹의 활동을 통해 이뤄진다.

워킹그룹 1의 명칭은 어휘(Vocabulary)이다. 이 그룹은 정보기술 분야에 적절한 핵심 용어나 정의를 내리고 항목들 사이의 관계성을 규정한다. ISO/IEC/JTC1/SC36과 관련된 메타데이터 레지스트리에 관한 규정, 이것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절차 표준안 또한 이 그룹에서 규정하고 있다.

워킹그룹 2는 협력학습(Collaborative Technology)이다. 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요 프로젝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러닝 협업학습장(Collaborative Workplace)', '문자기반 협력학습 상호작용(Text-based Collaborative Learning Communication)', '에이전트와 에이전트 간 커뮤니케이션(Agent to Agent Communication)'의 표준화 작업이다.

또한 워킹그룹 3의 명칭은 참여자 정보(Participant Information)이며, 여기에서는 참여자정보 프로파일이나 공적정보와 개인정보(Public and Private Information)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며, 워킹그룹 4는 관리와 전달(Management and Delivery)에 대한 표준화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학습객체인 LOM에 관한 지금까지의 표준들을 수용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워킹그룹 5는 품질인증(Quality Management, Assurance and Metrics)에 관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워킹그룹 6의 명칭은 국제표준과 연계활동(International Standardized Profiles)이다. e러닝 표준은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정보기술 분야이기보다는 이미 제정된 다양한 정보기술의 연계와 조화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관련 표준안을 조사해 잘 응용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그룹이다.

워킹그룹 7은 문화 · 언어 · 인간 기능 활동(Culture, Language, and Human Functioning Activities) 분과로서 제정된 표준들을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 그리고 환경을 고려해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한편 SC36에는 레파춰그룹(Rapporteur Group)이 운영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워킹그룹으로 활동하기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되거나 여러 워킹그룹의 보조적 기능 그룹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구성된다. 현재 1개의 레파춰그룹 (RG1 Marketing)이 있다. 이 그룹은 SC36 활동을 각 나라에 잘 알리고 이 활동에 대한 공감을 형성하는 작업을 한다.

한국의 최근 SC36 총회 참여 현황

한국의 경우, 2000년 4월 SC36 국내 전문위원회가 설립돼 활동을 시작했고 2002년 7월 참관회원(O-Member)에서 정회원(P-Member)으로 승격됐다. 최근 몇 년간 적극적으로 SC36과 관련된 다양한 의사결정에 직접 참가해 국제적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표준

화 사항의 결정에서 국가를 대표해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국내 e러닝 제반기술의 발전방향 모색 및 표준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난 9월에 미국에서 개최된 12차 총회에서는 다음과 활동들이 이뤄졌다. 우선 워킹그룹 1에서 한국과 영국, 한국과 프랑스, 한국과 캐나다 간의 용어 표준화 및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상호 협조관계를 유지키로 했고, 워킹그룹 2에서는 제11차 도쿄 총회에서 한국이 맡기로 한 프로젝트(Agent to Agent Communication)에 관해 작업안(Working Draft)을 발표하고 검토 작업을 벌였으며, 수정된 결과를 다시 내년 3월에 개최될 13차 총회(핀란드의 트루크)에서 발표키로 했다. 그리고 워킹그룹 3에서는 'm러닝' 에 관해 발표하고 6개월간의 연구기간을 거쳐 프랑스와 공동으로 연구보고서 발표를 차기 총회에서 수행키로 했다. 워킹그룹 5의 경우 품질모형(Quality Model)에 대한 프로젝트의 Co-editor를 수행키로 했다. 또한 레파춰그룹 1의 경우 한국 대표가 향후 6개월간 공동 의장을 맡기로 하는 등 e러닝 국제표준화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케 되는 성과를 얻었다.

주요 참가국의 최근 SC36 총회 활동 분석

● 미국

이번 총회를 주최한 국가로서 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모든 워킹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 및 'Participant Accommodation Information' 에 관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인다.

● 일본

이번 총회에 5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워킹그룹 2를 중심으로 국제 표준화 활동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 영국

이번 총회에 4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이번 총회를 통해 SC36의 비서(Secretariat)를 맡기로 하고 레파춰그룹 1의 공동 의장을 맡는 등 매우 적극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독일

이번 총회에 3명의 대표단을 파견했다. 워킹그룹 5(Quality Assurance and Descriptive Frameworks)의 간사(Convener)를 맡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캐나다

9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자국의 입장을 매우 저돌적으로 개진하면서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총회를 통해 워킹그룹 1의 간사(Convener)를 맡고 워킹그룹 2의 '학습자와 학습자 커뮤니케이션' 프로젝트의 Co-editor로서 활동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이다

● 프랑스

올해 4명의 대표단을 파견한 프랑스의 경우 기업의 전문가 및 관련 대학 교수들이 팀을 이뤄 참여하고 있다. 이론적인 무장을 하고 미국 중심의 표준화 작업에 가장 강력한 반대 및 대응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특히 한국과 메타데이터 표준 및 용어 표준 작업에 관해 협력을 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

● 호주

3명의 대표단을 파견했으며, 국제적인 IMS 및 DCMI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제 교육정보 표준화 작업에 있어 호주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표준화 활동 대응방안

SC36이 본격적인 활동을 1999년 12월에 시작한 이래 매년 참가국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각국의 관심 역시 향후 e러닝 시장에서 자국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자국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이 대단함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미국의 독주에 대해 영국 · 캐나다 · 호주 · 프랑스 등이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캐나다와 프랑스 등이 학습자원의 메타데이터 표준안과 용어 표준안 제정 등에서 한국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망된다.

또한 좀더 깊이 있는 우리의 의견 개진을 위해서는 총회에 참석하기 전에 선행 연구가 필요하며, 컴퓨터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보의 특성상 컴퓨터의 구조적 특성, 통신 측면, 메타데이터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측면, 그리고 교육학 및 교육공학적 측면이 모두 망라돼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대표단 파견 시에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좀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SC36 총회에 참석하는 각국의 대표들은 모두 오랜 기간 동안 다른 SC들에서도 같이 활동하고 있으며, SC36에도 매번 같은 대표들이 연속적으로 참여해 서로 간에 인간적인 신뢰가 형성돼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한국도 계속적으로 동일인을 참석하게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 워킹그룹은 그들만의 중간회의(Interim Meeting)를 개최하고 있으며 각 Liaison(예를 들어, IEEE LTSC · CEN/ISSS /LTWS · DCMI · IMS 등)들은 그들만의 별도 회의가 있는데, 한국의 경우는 오로지 총회에만 참가하고 있는 상태다.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총회뿐만 아니라 각종 중간회의에 참석해 총회와 총회 사이에 발생된 표준화 관련 발표, 토론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차기 총회에 참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